

고등과학원에서의 생활을 뒤로 하고

글 _ 박부성 · 전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연구원 (현 경남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)

2년 전인 2007년 3월, 고등과학원 연구원이 되면서 신입 연구원 소개 글을 써야 했다. (모두 다 써야 되는 줄 알았다.) 그때 글의 제목은 ‘행운의 한 해’.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박사후 연구원이 될 때도 행운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지만, 고등과학원은 너무나 부러워하던 곳이어서 내 실력에 비해 과분한 행운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.

정말로 고등과학원 생활은 나에게 행운이었다.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,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, 함께 의견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뛰어난 동료들. 2년 동안 여러 편의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도 고등과학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.

행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. 고등과학원에 오기 전, 몇몇 대학의 교수 임용에 지원해 보았지만, 1차 서류 심사조차 통과해 본 적이 없었다. 그러다 작년에 마산에 있는 경남대 수학교육과에서 공고가 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서류를 넣었다. 아직 다른 이들에 비해 논문 편수는 부족하지만 고등과학원에 있는 동안 쓴 논문으로 최소 기준은 통과한 데다, 내 고향인 부산과 가까운 곳이기도 해서 그야말로 “재수가 좋으면”이라는 생각이었다. 그리고 지난 성탄절 직전, 합격 통보를 받았다. 임용 전후 사정을 알고 보니, 정말 재수가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.

이후로 지금까지 정신없이 두 달을 보냈다. 당장 마산에 집부터 알아봐야 했고, 퇴직 준비에, 이사에, 신입 교수 오리엔테이션에, 강의 준비까지,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.

지방 사립대의 상황이 대개 그렇듯, 여기도 교수가 적어서 (강의 전담 교수 2명을 포함해서 모두 6명) 강의는 많은 반면, 재임용 기준은 (수학과로서는) 꽤 빡빡한 편이어서 벌써부터 약간 걱정이 된다.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온 행운을 생각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해 본다. 또, 고등과학원에 있을 때는 강의를 전혀 하지 않다가 다시 기초 과목 강의를 하러니 이것도 약간 걱정이 된다. 아직까지는 강의에 대한 감을 못 잡아서인지 며칠 전 수업에서는 약간 오락가락하는 일도 있었다.



경남대 본관 앞의 월영지

강의 말고도 바쁜 일은 차고 넘칠 지경이어서, 올해는 학회 일까지 덩으로 맡아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이 되고 있다. 올 초에 부산경남 수학회와 대구경북 수학회가 영남 수학회로 통합되면서, 대한 수학회 부회장이기도 한 경남대 수학교육과의 남영만 교수님이 초대 회장이 되셨다. 그 바람에 나는 발령도 나기도 전에 영남 수학회 학술지 *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*의 편집이사가 되어 있었다. 고등과학원에 채용도 되기 전에 뉴스레터 편집위원이 먼저 되었는데, 비슷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. 편집위원이 편집이사가 되었으니 이것도 승진이라면 승진 이랄까.



과사무실에서 내려다 본 마산 앞바다 정경

고등과학원에 있던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, 편집위원으로 뉴스레터를 만들었던 것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. 열떨결에 맡은 편집위원이었지만, 뛰어난 편집위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늘 즐거웠다. 원고를 쓰는 것이 껍이나 귀찮은 일이었을 텐데도 흔쾌히 원고를 써 준 교수님들과 연구원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서나마 감사를 표하고 싶다. 또, 나같이 게으른 편집위원도 큰 문제없이 편집위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편집장인 박창범 교수님과 홍보팀 김윤희 씨의 수고 덕분이었다.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.

편집위원 일 가운데 힘들었던 점이라면 원고를 주기로 하신 분이 마감을 넘기는 것이었다. 그런데 정작 내가 이 원고를 늦게 쓰는 바람에 계산과학부 신임 편집위원인 신용현 박사를 힘들게 하였으니, 미안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다. 신용현 박사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.

고등과학원을 떠나지만, 가끔은 *associate member*로 고등과학원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. 이런저런 일로 멘토 교수인 박형주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분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내려와야 했다. 방학 때쯤 고등과학원에 가게 되면 꼭 다시 인사를 드려야겠다. [KIAS](#)